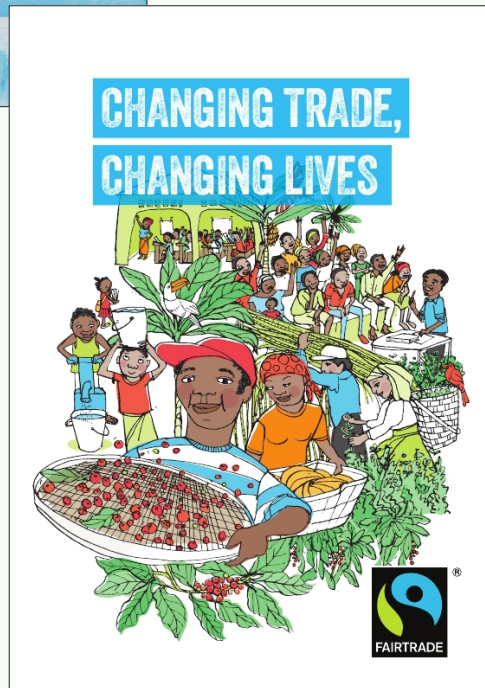


과일향이 풍부한 공정무역 맥주 '몽고조(MONGOZO)'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맥주를 생산한다고 알려진 벨기에,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개성을 자랑하는 맥주가 바로 몽고조입니다. 코코넛, 바나나, 망고의 풋풋하고 달콤한 향, 한입 베어물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과육의 맛을 몽고조는 그대로 재현합니다.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빗줄기를 모두 견뎌내고 탐스럽게 자란 과일만을 사용하기에 착향이나 착색으로 흉내만 낸 과일 맛 맥주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과일 맥주입니다. 또한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벨기에 브루어리 Huyghe의 고유한 레시피로 엄격하게 제조한 정통 맥주답게 이국의 정치와 유럽맥주의 깊은 맛이 이루어낸 뛰어난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또한 맥주 중에서는 최초로 공정무역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맥주를 만드는 사람부터 즐기는 사람까지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몽고조 맥주의 철학입니다.



몽고조 버킷 화이트
(MONGOZO Buckwheat white)

원산지: 벨기에 Huyghe 브루어리
도수: 4.8%
유기농 메밀, 홉, 오렌지 껍질 및 고수를 포함한 허브로 만들어진 화이트 비어로, 신선하고, 허브향과 함께 과일향이 나며, 가벼운 홉 풍미와 부드러우면서 상큼한 뒷맛을 자랑한다.

몽고조 바나나
(MONGOZO Banana)

원산지: 벨기에 Huyghe 브루어리
도수: 3.6%
바나나향이 가득하고 달콤하며 맥주의 향은 뒷맛에서 느낄 수 있다. 바나나 맥주는 탄자니아와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적인 맥주이다.

몽고조 망고
(MONGOZO Mango)

원산지: 벨기에 Huyghe 브루어리
도수: 3.6%
몽고조 망고 맥주는 달콤하고, 신선한 망고 향이 가득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맥주이다. 이국적인 음식이나, 더운 여름 밤에 어울리는 신선한 맛이다.

몽고조 코코넛
(MONGOZO Coconut)

원산지: 벨기에 Huyghe 브루어리
도수: 3.6%
코코넛향이 가득한 이국적인 맥주이다. 몽고조 코코넛은 가장 품질이 좋다는 스리랑카 코코넛과 공정무역 쌀로 만들어졌다.

